

# 실록 밖에서 찾아낸 날 것 그대로의 역사

“조선은 ‘모자의 나라’였다. 식사를 할 때도 곁웃은 벗더라도 모자만은 반드시 썼다. 그런데 갖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이덕무의 ‘양엽기’의 한 대목이다. “갖의 폐단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나룻배가 바람을 만나 기우뚱거리길 때 조그마한 배 안에서 급히 일어나면 갖 끝이 남의 이마를 찌르고 좁은 상에서 함께 밥을 먹을 때에는 남의 눈을 다치게 하며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는 난쟁이가 갖 쓴 것처럼 민망하다.”(본문 중에서)

조선에 대한 정의는 많이 있지만 보편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기록의 나라’다. 왕이 사망하면 재위하는 동안 있었던 모든 일의 기록을 엮어 실록으로 남겼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된 ‘조선왕조실록’은 태조부터 철종까지의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책이다. 25대 470여 년에 걸쳐 1893권 888책이 완간됐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록 밖에도 역사는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성리학의 도입과 함께 학문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많은 저작물이 탄생했다. 시문과 상소, 행정 등 다양한 형식의 글뿐 아니라 정치, 역사, 인물, 사상, 세태 등 다루는 분야도 방대하다.

조선 후기에는 경제가 발전하고 신분제도가 느슨해지면서 여성들은 물론 글을 쓰는 계층이 다양해졌다. 중인 이하의 하층민들도 저자로 참여했는데 이들은 정사에서는 다루지 않은 사건이나 신변잡기 이야

기를 기록했다. 자신들이 직접 보고 겪은 위인들의 사생활, 민초들의 고단한 일상을 드러내는 해학과 풍자를 곁들여 풀어냈다. 고전의 눈으로 바라본 우리 역사 이야기가 책으로 출간됐다. 실록 밖에서 찾아낸 사소하지만 생생하고 낯설지만 새로운 역사 이야기다. 현직 기자이자 ‘얼굴, 사람과 역사를 기록하다’의 저자 배한철 씨의 ‘역사, 선비의 서재에 들다’는 ‘석담일기’에서 ‘어우야담’에 이르는 다양한 고전에 주목한다. 개인의 문집과 야사집을 토대로 쓰인 각각의 일화는 흥미진진하다.

형제를 죽이고 왕위에 오른 태종, 역사 조카를 밀어내고 등극한 세조에 대한 평가는 실록과 야사에서는 엇갈린다. 전자는 건축 초기 왕권을 확립하고 국가 기틀을 다졌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지만 후자는 패륜이며 불충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또한 선조가 무능한 군주였는지에 대한 평가도 엇갈린다. 후세 사람들은 선조가 전쟁의 위협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무능한 군주로 본다. 그러나 율곡 이이의 문집 ‘석담일기’에 나오는 선조의 모습은 무능과는 거리가 있다. 학문과 예술을 사랑하고 백성의 고통을 보듬을 줄 아는 임금으로 그려져 있다. 율곡 이이는 “(선조가) 어려서부터 자질이 뛰어나고 외모가 깨끗하고 뛰어난다”고 평했다고 한다.

이처럼 고전에는 실록과는 다른 기록들이 등장한다. 훈민정음 창제에 참여하는 등 역량이 뛰어나, 후일 영의정까지 오른



역사, 선비의 서재에 들다

배한철 지음

신숙주에 대한 내용도 그렇다. 김택영이 쓴 ‘한사경’을 보면 그가 세조에게 단종의 비 정순왕후를 자신의 첩으로 달라고 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윤근수의 ‘월정만필’과 이극익의 ‘연려실기술’에도 같은 내용이 전하는 것을 보면 거의 사실인 듯하다. 조카의 왕위를 찬탈한 세조보다 군주의 아내를 탐했던 신숙주를 더 악독하다고 욕하는 이유다.

그와 달리 민담과 야사 속 위인들의 모습은 사람냄새가 나고 익살스럽다. 오성과 한을 설화의 주인공 이항복은 도원수 권율의 딸과 결혼하면서 데릴사위로 처가에 들어간다. 문제는 그가 처갓집 여중에게 마음을 빼앗겨 바람을 피우다 장인에게 들켜고 만다. 다급한 상황에 능청스럽게 웃으

율곡 ‘석담일기’에서 ‘어우야담’까지

48권의 고전에서 길어올린 우리 역사의 진면목

태종·세조·선조 등 실록에서와는 평가 엇갈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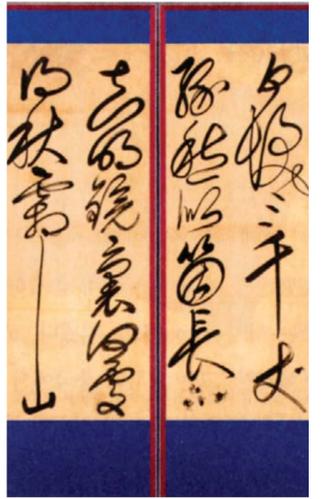


작자 미상 풍속화, 조선시대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술을 마셨다. 관리들은 아침식사를 마시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 <생각 정거장 제공>

면서 농담으로 넘기는 이항복에게 권을 또한 말을 잃고 웃고 만다.

일상의 풍습이 어떻게 정착됐는가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다. 우리의 삼 문화 가운데

대표주자인 상추에 관한 이야기가 그렇다. 상추는 채소를 날 것으로 먹는다는 뜻의 ‘생채(生菜)’에서 유래했다. 특히 고구려인들은 상추를 즐겨 먹었는데 한치윤의



‘선조야담’ 병풍

‘해동역사’에는 고구려의 상추씨가 중국에서 인기를 끌었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처럼 책에는 친근하면서도 재미있는 역사들이 맛깔스럽게 기술돼 있다. 어느 이름 없는 선비의 서재에 꽂혀 있던 문집의 이야기가 우리의 역사의 한 칸을 채우는 조각이 된 것이다. 날 것 그대로의 역사가 주는 재미가 자못 쏠쏠하다.

<생각 정거장·2만2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땀 흘리는 소설

## 김혜진 외 지음

연애는 꿈도 못 꾸고 인간관계마저 포기해야 하는 청춘들에 관한 소설을 묶은 작품집이 발간됐다.

김혜진, 장강명 등 모두 8명의 작가들이 펴낸 ‘땀 흘리는 소설’은 아련한 눈으로 동시대 청년들의 애환을 섬세하게 그린 작품집이다. 현실 교사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을 제자들을 격려하며 앞으로 사회생활 지표가 될 8편의 소설을 가려 엮었다.

책은 소설을 통해 일과 직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기획됐다. 현대 사회에서 일하는 청춘들의 이야기를 통해 점차 더 고착화되고 복잡해져가고 있는 노동의 문제를 파고 든다.

김혜진, 김세희, 김애란, 서유미, 구병모, 김재영, 윤고은, 장강명의 작품이 실려 있으며 이 8편의 소설 속에는 인터넷 방송 BJ, 공무원 시험 준비생, 카드사 콜센터 직원, 외국인 이주 노동자, 알바생 등 N포 세상에 ‘을’로 내던져진 청춘들이 담겨 있다.

각각의 소설들은 일의 가치(‘어비’), 직업 선택과 직업 윤리(‘가만한 나뉘’), 청년 실업(‘기도’), 여성 노동(‘저건 사람도 아니다’), 감정 노동(‘어디까지를 묻다’), 이주 노동(‘코끼리’), 산업 재해(‘P’), 해고(‘알바생 자르기’) 등 노동에 관련된 여러 주제를 다룬다.

그렇다고 소설이 딱딱하거나 교조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일하는 청년들의 삶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노동 문제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일다운 일’이란 무엇이며 그렇게 돈을 벌어도 되는가라는 김혜진의 소설 ‘어비’에서 보듯 작품은 고달픈 청춘들의 진솔하면서도 핏진한 이야기를 담아낸다. <창비교육·1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박순의 생각, 한시로 읽다

## 박순 지음, 박명희 편역

나주 출신 박순(1523-1589)은 조선 초기의 문신이자 학자이다. 자는 화숙(和淑)이고, 호는 청하사(靑霞子)·사암(思菴)이며, 시호는 문충(文忠), 본관은 충주(忠州)다. 조선시대 14년 동안 정승 벼슬을 지낸 문인으로 유명하다. 특히 18세 때 서경덕 문하에 입문해 이론과 실재를 병행하는 학풍을 배웠다.

박순의 문집인 ‘사암집(思菴集)’은 1652년(효종 3)에 6권 2책으로 처음 간행됐고, 1857년(철종 8) 7권 3책으로 중간됐다.

‘사암집’에서 부록 등을 제외한 본집은 모두 4권이며 이 중 박순이 남긴 시가 3권을 차지한다.

전남대 박명희 박사가 박순의 한시를 편역한 ‘박순의 생각, 한시로 읽다’를 펴냈다. 책에는 모두 143수의 작품 평설과 풀이 등이 순서로 정리돼 있어 일반인들도 접근할 수 있다.

박 박사는 이번 편역서에서 한시 작품 중 ‘소시(少詩)’, ‘가족’, ‘지인’, ‘관직’, ‘영평’이라는 다섯 가지의 주요 어휘를 추출해 박순이 한시에서 무슨 생각을 드러내었는가를 구명했다.

그리고 주요 어휘를 기반으로 박순의 시를 ‘소시(少詩)’에 지은 시 작품, ‘가족을 바라본 따뜻한 시산’, ‘지인들에게 보낸 마음의 시’, ‘관직 생활 중에 일어난 시산’, ‘탈속한 자연인의 삶과 여유’ 등 다섯 갈래로 나누어 정리했다.

박 박사는 “앞으로 호남 한시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로 한시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싶다”고 출간 의미를 부여했다. <온샘·2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작은 행성을 위한...

## 시릴 디옹 지음, 권지현 옮김

미세먼지·폭염 등 이상기후로 우리는 이미 지구의 위기를 체감하고 있다. 다큐멘터리 영화 ‘내일 Demain’으로 프랑스에서만 110만 관객을 불러모은 시릴 디옹 감독은 현실을 거꾸로 뒤집는 새로운 발상으로 성장 신화와 소비를 조정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바꾸자고 한다. 그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청원에 동참하고, 기부를 하고, 보이콧을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한다. 책 ‘작은 행성을 위한 몇 가지 혁명’을 통해 이제는 세계관을 바꾸자고 주장한다. 그래야만 이 작은 행성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실천이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아닌 실질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책에는 ‘기온이 5도 상승하면 지구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계속해서 성장하고 소비하면 우리는 행복할까?’ 등의 질문이 시종일관 등장한다.

지은이는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은 몇 년밖에 남지 않았고, 이를 위해서 시민들과 정치인이 협력해서 진정한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고 말한다. 선거 때만 민심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들을 더 이상 두고 보아선 안 된다고 경고한다. 이 변화는 인류가 진화하게 된 동력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지금껏 우리가 믿어왔던 ‘경쟁·성장·발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일은 이미 많은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네덜란드의 친환경 도시, 덴마크의 산업 단지, 수백만 명의 기업을 등의 일상에 이미 옴트고 있다. 이렇게 지은이는 미래를 선택할 새 담론을 만들자고 제안한다.

<갈라파고스·1만3000원>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방치된 묘지 70%(추정)**

우리 금수강산이 묘지장산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자연장·수목장

- 자연장의 장점 ●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아름수목장** 자연장·수목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14 랜덤피아 1011호

☎ (062) 372-7878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례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례문화입니다.